

발해 멸망 해동성국이 지다

926년(대인선 21)

1 발해, 신라, 당의 혼란과 거란의 성장

발해에서는 793년 문왕(文王)의 사망 이후 25년간 6명의 왕이 즉위하였다. 그것은 발해의 왕위 계승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문왕의 뒤를 이어 대원왕(大元義)이 즉위하였는데 바로 피살되었고 이후 성왕(成王), 강왕(康王), 정왕(定王), 희왕(僖王), 간왕(簡王)이 차례로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왕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 왕위 계승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내분기로도 파악할 수 있다. 818년 10대 선왕(宣王) 대인수(大仁秀)가 즉위할 때까지 왕위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발해는 선왕 때부터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릴 정도로 융성기가 되었다. 그러나 906년경 대인선(大諲譏)이 즉위한 이후 발해는 쇠퇴하면서 급격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대인선의 재위 기간(906?~926)은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 당도 비슷하게 혼란을 겪고 있었다. 신라도 하대에 들어서면서 진골귀족 사이에서 빈번하게 쿠데타 시도, 왕의 시해 등이 일어나면서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농민층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이 격화되고 있었다. 결국 태봉과 후백제가 건국되면서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

당에서는 9세기 후반부터 중앙의 통제력이 붕괴하였고 지방의 번진(藩鎮)세력이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결국 907년 멸망하였다. 당(唐) 멸망 이후 979년 송(宋)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중국은 후량(後梁)을 시작으로 5대(代) 10국(國)의 분열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중원과 발해의 혼란으로 인해 거란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다. 거란 부족들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를 중심으로 규합하였고, 916년 왕조를 건국하고 요(遼)로 국호를 삼으면서, 부족 단위가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발해와 거란의 전쟁, 그리고 발해의 멸망

9세기 해동성국의 번영을 구가하던 발해가 거란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지배층 사이의 내분이 주요한 멸망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이 또한 석연치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해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이 거란의 침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거란은 당의 멸망 이후 중원의 분열 속에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915년 10월에는 야율아보기가 직접 압록강에서 낚시를 하고, 신라는 거란에 방물을 바치고 태봉은 고려 보검을 바치는 등 발해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발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라와의 결원(結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소득은 없었다. 거란은 급속히 강해지고 있었고, 신라, 태봉 및 그 뒤를 이은 고려는 거란과의 교류를 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발해 역시 918년 2월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20년 발해인 4명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등 서서히 발해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발해의 영향 아래 있던 여진이나 흑수, 달고 등이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신라나 고려, 중원과 접촉하는 등 발해의 주변 민족에 대한 통제력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었다.

거란이 계속해서 요동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발해는 924년 5월 요주(遼州)를 공격하여 자사(刺史) 장수실(張秀實)을 죽이고 그곳의 백성들을 약탈하였다. 당시 거란은 서방 원정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924년 7월 거란은 발해를 공격했으며, 발해는 여진(女眞)과 회골(廻鶻), 황두실위(黃頭室韋) 등을 동원하여 거란을 공격하였다. 다시 9월 거란이 발해를 공격하여 여러 번의 공격을 거듭지 못해다 이러한 약구가이 고바오 발해가 926년 거란이 인경에